

‘금남로 휴머니스트’ 故 임춘평의 나눔정신

피부와 윤영하며 화가 등 도와
‘임춘평 그리는 사람들’ 발족
29일 무등현대미술관에서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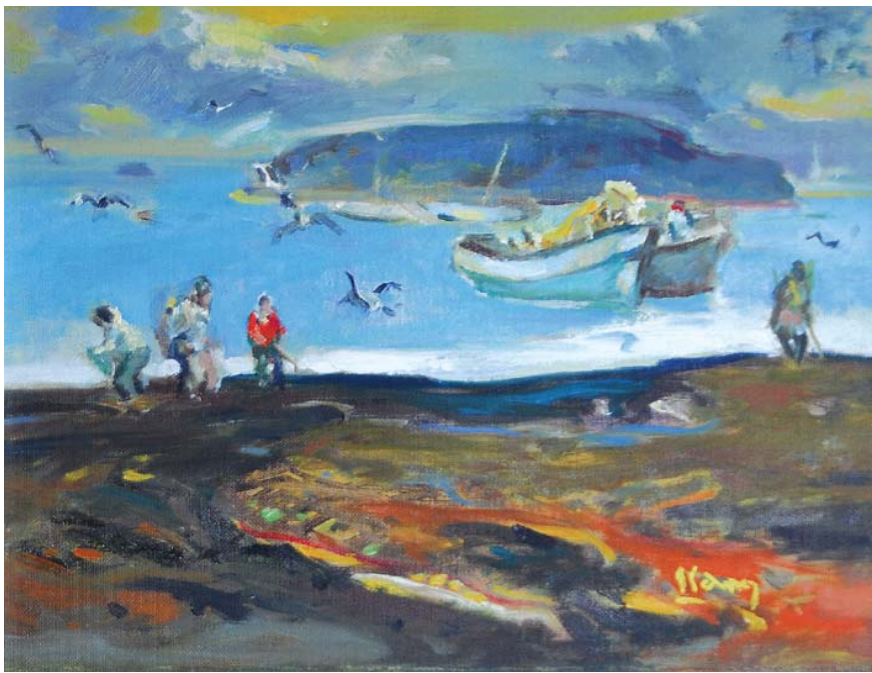


고(故) 문병란 시인은 그를 일컬어 ‘금남로의 휴머니스트’라고 했다. 그에게서 ‘우잠바’로 불렸던 우제길 화백은 “가진 돈이 없으면 일수 찍는 사람들 급하게 불러 돈을

마련해 장학금을 주던, 늘 베풀던 사람이자 예술가들 특히 그림장이를 좋아했던 형남”으로 그를 기억했다. 또 정송규 무등현대미술관장이 추억하는 그는 “직업은 피부과 의사였지만 의사의 명칭보다는 별난 술꾼, 퍼주는 기인,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1990년,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故) 임춘평 박사 이야기다. 함평 출신으로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조선대 교수 및 피부과장을 역임한 그는 1980년부터 금남로 37에서 임춘평 피부과를 운영했다.

늘 ‘나눔’이 일상인 사람이었다. 시 쓰는 걸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했던 로맨티스트였던 그는 진료를 마치고 나면 녹두집에서 미술인들과 술잔을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작품전이 열릴 때면 전시장으로 뛰어가 작품을 사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자신도 변두한



고(故) 임춘평 박사가 소장한 최쌍중 작 ‘인천영종도’ (왼쪽), 양수아 작 ‘여인’.



집 한채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남을 위해서는 늘 주머니를 열었던 그의 병원에는 환자 뿐 아니라 일수 찍는 사람들도 자주 눈에 띄었다.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그의 월급봉투는 비어 있기 일쑤였고, 민주인사들을 돕기 위해 판금된 책을 구입해 환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누군가 등록금을 낼 수 없다는 소식을 들으면 열일 제쳐두고 돈을 마련하곤 했다.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뜬 그가 소장한 작품은 200여점에 달했다. 황영상·최쌍중·이강하·양수아·강연균 등의 작품이다. 그의 작품은 20주기였던 지난 2010년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화, 사랑, 나

눔-임춘평’ 소장전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개됐고 3년 뒤 한차례 더 전남대병원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잠시 잊혀졌던 임춘평 박사의 이름이 다시 호명된 건 그의 ‘나눔 정신’을 알리기 위한 이들의 움직임들 통해서다. 나눔과 공동체 정신을 정체성으로 삼는 광주와 딱 어울리는 인물이 바로 ‘광주사람, 임춘평’이라고 느낀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준비모임을 꾸리고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현재 정송규 무등현대미술관장, 조규춘 조선대 미대 교수, 전영원 광주동구의원, 홍인화 전 광주시의원, 양경모 작가, 김선신 은혜학교 미술교사 등과 부인 박영자, 딸 복희씨 등이 가칭 ‘광주 사람 임춘평을

그리워 하는 사람들’을 결성, 의견을 나누며 소장 작품 정리 등을 진행했고 내년에는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는 왜 광주사람 임춘평을 그리워하는가’를 주제로 오는 29일 오후 2시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송년회에서는 소장작 프리젠테이션을 시작으로 내가 기억하는 임춘평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딸 복희씨는 “아버지는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가들을 존경하는 분이셨다”며 “여건이 되면 소장작들을 시민들이 함께 나누는 공간이 마련돼 아버지의 문화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10-5607-044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골판지 속 파스한 달동네

양나희 전 16일까지 양동 발산마을 ‘뽕뽕브릿지’

골판지를 자르고 이어붙여 채색 작업을 하는 양나희 작가는 올해 개인전을 준비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싶었고 그 변화의 동력 가운데 하나로 ‘공간’을 생각했다. 양동 발산마을에 자리한 ‘뽕뽕브릿지’로 전시장을 결정하면서 그는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해 볼 수 있었다.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쉽게 그려진 그림’전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어떤 곳엔 방치된 느낌을 주는 ‘뽕뽕 브릿지’만의 매력과 어우러져 색다른 느낌을 준다.

전시장에 들어서기 전 만나는 그의 대표 작품들 역시 화이트 벽면 대신 누구간의 집에 있을 법한 창틀 안에 배치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사진〉눈 내리는 발산마을의 풍경을 골판지를 차곡차곡 붙인 작품으로 파스함이 전해진다. 100호 대작에서는 한 화면 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시간의 흐름을 담아냈으며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보길도의 풍경을 새롭게 재해석하기도 했다.

눈에 띄는 건 처음 시도한 설치 작업으로 주 재료인 골판지를 화면에 차곡차곡 붙여 채색하는 기본 방식 대신,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다. 2층 공간에서는 낡은 액자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꼭지, 그 수도꼭지 안에서 물처럼 쏟아지는 골판지 조각들이 어우러진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골판지 상자 수십여개를 차곡차곡 쌓아 기존의 평면에서 보여줬던 ‘동네 풍경’을 입체적인 모습으로 구현하기도 했다.

설치 작업에 사용된 ‘액자’ 중 하나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사진 연작에서 중요 모티브로 활용됐다. 작가는 첫번째 개인전 때 사용했던 오래된 액자를 자신이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 액자 속에는 광주 도심 곳곳을 촬영한 사진을 넣어 포토스케이프 작업하고 배경에 붓터치를 넣어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작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문의 010-5683-050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순백의 아름다운 달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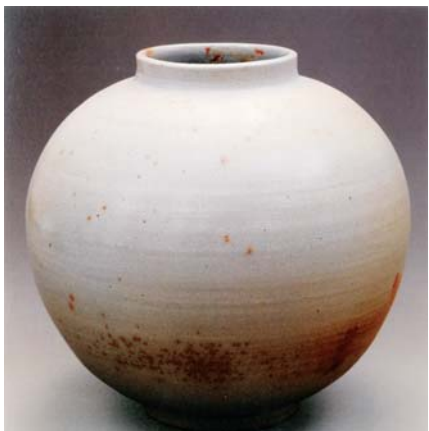
정이석전 12일까지 예술의 거리 향담갤러리

담양에서 작업하고 있는 도예가 정이석 작가 개인전이 12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향담갤러리에서 열린다.

‘순백의 아름다운 달항아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정 작가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예술 작품인 달항아리를 선보인다. 담백하고 꾸밈없는 백색의 은근한 맛을 보여주는 백자 달항아리를 비롯해 형태, 재료, 제작 기법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신만의 다채로운 조형 어법을 통해 재해석한 작품들도 함께 만나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서는 또 은은한 매력이 돋보이는 다채로운 다기 세트와 함께 아름다운 문양이 들어간 차탁, 접시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작품들도 함께 선보인다.

호남대 미술학과와 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한 정 씨는 10여차례 개인전과 다양한



‘달항아리’

그룹전에 참여했다. 광주시미술대전·전남도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문의 062-266-1215. /김미은 기자 mekim@

‘러빙 빈센트’ 재개봉...제작 과정 만난다

13일 광주극장 등서

지난해 반 고흐 열풍을 일으킨 영화 ‘러빙 빈센트’를 확장판으로 다시 만난다.

‘러빙 빈센트’ 개봉 1주년을 맞아 ‘러빙 빈센트:비하인드 에디션’〈사진〉이 오는 13일 광주극장 등에서 개봉된다. 원작에 12분 분량이 더해진 ‘러빙 빈센트:비하인드 에디션’은 엔딩 크레딧 뒤에 영화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을 추가했다. 영화에서는 ‘러빙 빈센트’가 탄생되기까지 도로타 코비엘라, 후 웰치만 두 명의 감독과 제작자, 107명의 아티스트들이 간직한 10년 간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개봉한 ‘러빙 빈센트’는 다양한 영화로는 처음으로 4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40만9500명의 관객을



모았다.

살아 생전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팔았던 화가 빈센트의 죽음 후 1년, 빈센트의 지인이었던 아버지 ‘룰랭’ (크리스 오다우드)의 부탁을 받고 빈센트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떠난 아르망 (더글러스 부스)은 빈센트가 머물렀던 마을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된다. 15세 관람가. /백희준 기자 bhj@

미디어 시대 인간과 기술·예술의 관계는?

광주시립미술관 내일 강좌

미디어 아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는 강좌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미술관 아카데미 8번째 강좌로 김노암〈사진〉‘아트스페이스 슈’ 대표를 초청, ‘미디어아트-감각과 사유’를 주제로 강연한다. 11일 오후 3시 미술관 강당.

이번 특강에서는 미디어 시대에 인간과 기술, 예술과의 관계를 탐구한다. 강의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가상현실아트, 인공지능아트, 인터랙티브아트, 인공지능명아트 등 뉴미디어와 결합된 미디어아트의 의미와 현황을 살펴본다.

김대표는 회화와 미학을 전공하고 다



수의 미술 전시를 기획한 예술가이자 미술기획자다. 갤러리사비나(현 사비나미술관) 큐레이터를 시작으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전시프로그래머 및 운영위원, 광주비엔날레 시민참여예술 프로그램 프로그래머, 헤이리 판페스티벌 예술감독, KT&G 복합문화센터 상설마당 전시감독 및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문의 062-613-715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